비우기

(Kenosis)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

(빌립보서 2:7)

제임스 김

목차

서론 4

왜 '내려놓기'가 아니라 '비우기'인가

1 부: '비우기'의 성경적 기초

1 장: 비우기(Kenosis)란? 8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

2 장 그리스도인의 비우기란? 12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비우기

3 장: 자기를 비워 종으로서 이웃을 섬김이란? 17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2 부: 우리 안에서 비워야 할 것들

4 장: "교만" 비우기 23

나를 높이려는 마음 비우기

5 장: "탐욕" 비우기 35

더 가지려는 마음 비우기

6 장: "위선" 비우기 46

보이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격 비우기

7 장: "거짓" 비우기 55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마음 비우기

8 장: "미움" 비우기 64

상처와 복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9 장: "악한 생각" 비우기 73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10 장: “음란” 비우기 82

잘못된 욕망을 비우고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기

11 장: “원망” 비우기 91

불신과 불만족을 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12 장: “질투” 비우기 101

비교를 비우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3 부: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기

13 장: 그리스도로 채우기 111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결론 120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걸어가는 ‘비우기’의 길

서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강단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내려놓기'일 것입니다. 한 신실한 몽골 선교사의 저서를 통해 이 표현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고, 이후 '내려놓기'는 직분과 사명을 넘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려놓기'보다 '비우기'라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기'에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나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움켜쥐려는 마음까지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려놓았지만 내일 다시 움켜쥘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욕심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내 뜻과 욕망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비우고, 내 삶의 중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차원의 제자도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 장 7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비우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두려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운 충만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욕심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교만을 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내 미움을 비우는 것은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 자존심과 고집, 탐욕과 두려움, 미움과 상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말씀 앞에서 살피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오래된 죄의 습관과 자기중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우기'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삶의 여러 영역에 숨어 있는 '비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위선을 비우고, 거짓을 비우며, 미움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원망과 질투를 비우는 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비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비우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시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비움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워 내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거울 앞에 조용히 서 보려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우기'는 단순한 신앙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제자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 길을 걷는 작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며 기록해 온 묵상과 나눔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록해 온 말씀 묵상과 설교의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참고하여 주제와 흐름을 정리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신앙적

방향과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의 중심은 저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피고 분별하며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글보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글을 쓴 사람보다 우리를 먼저 비우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비우기의 역사를 겸손히 사모하며, 오늘도 내 안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제임스 김 나눔
2026 년 9 월 12 일
내 중심을 온전히 비워 내지 못하고, 때로는 비워야 할 것조차 붙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을 구하며 …

제 1 부:

‘비우기’의 성경적 기초

1 장: '비우기'(Kenosis)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비우기'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겸손과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비우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빌립보서 2 장 7 절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한 구절 안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걸어가야 할 중요한 길이 담겨 있습니다.

비우기의 시작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 장 14 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1 절).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3 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4 절).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비우기'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케노시스'(kenosi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2 장 7 절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케노오"(κενόω)입니다. 여기에서 신학 용어인 "케노시스"(Kenosi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기를 그만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셨다고 이해한다면 성육신과 복음의 핵심 자체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 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붙들고 계시는 대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6~8 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신성을 버리는 비움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비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케노시스의 모습입니다.

비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우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조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비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 장 7 절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곧바로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음으로만 자신을 비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웠다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 장 45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움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움은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비움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운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빈 마음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운 자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결국 비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 장 5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설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더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성육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오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과정입니다.

비움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비우기'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움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 모든 비움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비움이어야 합니다.

2 장: 그리스도인의 비우기란?

1 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자기 비움, 곧 케노시스(Kenosis)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던 영광과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붙들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종교적 결심이 아닙니다. 내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 하나를 포기하고, 내 물질 일부를 나누는 것만으로 비움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비움의 모습으로 보여 줍니다. 빌립보서 2 장 17 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사역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비움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비움은 내가 무엇을 조금 덜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다른 길이 열릴 때도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주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에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내 안의 있는 죄와 욕망을 정직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욕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 제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비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을 발견했다면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비워내야 합니다. 탐욕을 발견했다면 그 탐욕을 인정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미움을 발견했다면 그 미움을 감추지 말고 비워내야 합니다. 위선을 발견했다면 그 위선을 벗겨내고 비워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4 장부터 12 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빈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비웠는데 그 자리를 다른 욕심이 채울 수 있습니다. 교만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마음을 비워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마음을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 장 5 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비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최종적인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내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도 나는 나를 높일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 줄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리스도인의 비움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가정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

그렇다면 이 비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모습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비움은 매우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만 붙들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내 명예와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비움입니다. 특히 부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엡 5:25, 33). 가정에서 내가 먼저 비워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

교회에서도 비움은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 주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 교회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직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뜻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에도 겸손히 들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

일터 역시 그리스도인의 비움이 시험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편법이나 과장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일터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물품이나 시간이나 자원을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 장 7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터에서의 비움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움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비움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비움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움을 통해 종이 되셨고,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 장 27~28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비움은 십자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 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움은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실천하는 '비우기' 세 가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비움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비우십시오.

둘째,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비움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런 순간에 자기 부인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비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비우고 끝내지 마십시오. 비우고 끝내지 마십시오.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비움과 채움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자기수양을 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이 됩니다.

비움은 섬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단순히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비우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운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비움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비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자기를 비워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장: 자기를 비워 종으로서 이웃을 섬김이란?

1 장과 2 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의미와,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비움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종이 되어 이웃을 섬깁니다.

비움은 단순히 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삶의 가장 분명한 열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빌 2:6~7). 온 우주의 주님이신 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마 20:28).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앞에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섬깁니다.

요한복음 13 장 14~15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요 13:4~5).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발에 흙과 먼지가 묻는 일이 흔했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기보다 친히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움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지만 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 역시 직분이나 경력, 학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삶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낮아져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허물을 봅니다. 배우자의 단점, 자녀의 부족함, 동료의 실수, 교회 지체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허물을 본 다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잠언 17 장 9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잘못을 무조건 없던 일로 만들거나 죄를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5 절에서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logizomai)는 계산하거나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꺼내어 사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비운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지 않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잖아"라고 과거의 잘못을 계속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몇 년 전의 실수까지 들추어 그 사람의 현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서했다면 그 잘못을 계속해서 정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동기를 함부로 악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오해합니다. "나를 무시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거야." "나를 싫어하니까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저러는 거야."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상대의 마음을 단정하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대화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상대에게 선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셋째,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을 계속 키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여 되새기면 작은 서운함도 분노와 원망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잡고 미움을 키우기보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클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3:15). 주님은 섬김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비움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 장 18 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시에도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17 절).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어 함께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다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약 2:17). 같은 원리가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배우자를 섬기지 않고, 일터에서 동료를 배려하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비움은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하는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사랑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잘해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비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비움은 결국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이 되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진 만큼 다른 사람이 세워지며, 내가 섬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나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비움은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비울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고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내 뜻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비움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비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 2 부:

우리 안에서 비워야 할 것들

4 장: “교만” 비우기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비움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 앞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비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만을 발견하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교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명예욕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고집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비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악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발판 삼아 스스로를 높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내 허물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마음의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는 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교만을 말씀 앞에 드러내어 비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은 종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만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잠언 16 장 5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매우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을 그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 장 18 절은 다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언제나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민감하지는 않은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을 때 질투하지는 않는가? 내가 한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는 않는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먼저 변명부터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서 정작 나는 배우려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바로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안의 교만을 보여주시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3 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며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선지자 뒤에 다른 사람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내용을 말씀 앞에서 살피기도 전에 즉시 거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과 충돌할 때 말씀을 고치려 하거나, 말씀을 전한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 역시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 안에서 무엇을 깨뜨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이처럼 교만은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지만, 겸손은 자신을 말씀에 맞춥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게 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 장에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작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와 불평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우는 길은 감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내 공로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로 흘러나옵니다. 고라의 교만은 자기 혼자만의 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교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을 편 가르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며, 지도자를 대적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교만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쉽게 사람을 모읍니다.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의심을 심습니다. 결국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의 갈등으로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모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세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인정받게 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교만은 성공할 때 더욱 쉽게 드러납니다.

교만은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쉽게 드러납니다. 에스겔 28 장 17 절은 두로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과 지혜와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은혜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 장 5 절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큰 지혜와 무역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물질과 성공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 장 17~18 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기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할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면 더 감사해야 하고,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성공이 나를 높이는 이유가 아니라, 더 낮아져 섬기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웃시야는 강성해진 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 장은 웃시야 왕의 실패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웃시야의 성공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강성해진 후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강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 사역이 성장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내가 가진 영향력이 커질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웃시야의 비극은 강성해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강성해진 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 장 24~25 절은 히스기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교만에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으니 괜찮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괜찮다.” “나는 많은 사역을 했으니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 장 12 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교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교만은 물질과 성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은밀한 형태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누가복음 10 장 29 절에서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한 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성경을 더 잘 압니다.” “나는 더 오래 믿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 장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상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금식과 십일조를 자신의 공로처럼 내세우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붙잡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7 장 19~20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읽는다면 말씀을 읽고도 내 교만은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제가 보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 비움이 시작됩니다.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말싸움과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 장 3~5 절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만과 변론과 언쟁,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연결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사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는 순간 내가 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작아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 장 1~2 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슬퍼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교만의 또 다른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변명합니다. 잘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가장 두려운 상태는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교만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비움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먼저 회개합니다. 변명보다 회개가 먼저이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살피는 것이 먼저이며,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울은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교만의 문제를 묵상할 때마다 사울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 장 17 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의 사울은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힘을 얻으면서 그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겸손은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했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압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크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은 사무엘상 15 장 12 절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요청했습니다(30 절).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만을 비우는 길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서 중요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 장 26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을 발견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가 사람의 인정을 더 원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음에도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삶입니다.

잠언 16 장 19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니라." 성경은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대접보다 섬길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교만이 머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4 절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머물 수 없습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지만,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억누르거나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정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더 이상 내 의와 명예와 권리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우기'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교만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내 마음의 교만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 만족하게 합니다. 교만은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를 세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나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에서부터 교만을 비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교만은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교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우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시 139:23). 내가 보지 못하는 교만까지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특별히 거만한 사람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만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할 때에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책망을 받을 때에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정죄하기보다 긍휼을 베풀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섬길 길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을 비워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교만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 권리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교만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자리로 내려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교만'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교만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교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사라지는 죄가 아니기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만 비우기의 원리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교만을 발견할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마음의 교만함을 정직하게 뉘우쳐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었던 것처럼, 내 힘만으로 교만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도록 구하십시오(대하 32:26).

2. 성공할수록 내 이름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일터와 사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내 능력과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삼상 15:12).

3.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작게 여기며 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맡은 자리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배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민 16:9).

4. 신앙생활을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금식과 십일조를 자신의 의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 봉사와 헌신을 자랑하기보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눅 18:13).

5. 높아지는 자리보다 낮아져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리를 좇기보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섬기십시오(잠 16:19).

그러나 이 모든 실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교만을 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마저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비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참된 비우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도록 도우십니다(신 17:19~20).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의 교만을 보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십시오.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게 하십시오.' 교만 비우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순종하여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자신을 높이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장: “탐욕” 비우기

앞 장에서 우리는 ‘교만’ 비우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 5 장에서는 교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움켜쥐게 만드는 ‘탐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의 정체를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비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한 대형 종합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박사는 암세포의 생리적 성질을 영적인 원리와 대비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학적 원리에 따르면 본래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성장하고 죽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포의 유전자에 비정상적인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스스로를 파괴하지도 않은 채 끝없이 자라나는 기형적인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른 정상 세포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영양분까지 혼자 차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암세포는 신체 내부를 사방으로 퍼져 다니며 다른 세포에게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을 거칠게 가로채어 독식하면서 성장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모습을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면서 다른 것까지 파괴하는 탐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생리적 특성과 영적 파멸의 관계를 향하여 성경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매우 선명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 장 15 절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이 탐욕이라는 괴물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자본으로도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중독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심에 사로잡혔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을 민수기의 기록을 통해 직시해야 합니다. 민수기 11 장 4 절과 20 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 너희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 가운데 섞여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처럼 탐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세상의 세속적인 풍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무섭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어린아이처럼 소리 높여 울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중심에 탐욕이 가득 차오르자 그들의 판단력은 심각하게 흐려졌습니다. 급기야 과거 비참하게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았던 죄악의 땅, 곧 애굽을 그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풍족하게 먹었던 때를 오히려 좋았던 시절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였던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의 광야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했습니다(5, 18 절).

성경은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풍요와 정욕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한 죄악으로 엄중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진노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만나를 멸시하고 고기에 대한 눈먼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심판의 흔적이 남은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민 11:34). 탐욕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삼키고 파멸시키는 우상이 됩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빼앗게 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탐욕이 개인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삶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의인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소유를 얻지 못하면 옹졸하게 분노하며 악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탐욕의 실상을 성경에 기록된 아합 왕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 장 3~4 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궁 곁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자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기업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나봇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탐심이 거절당하자 그는 기분이 상하여 몹시 낙심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심하게 불쾌해하며 원망의 독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소득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태로운 인간의 실상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 장 15 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는 어떤 형태의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면의 탐심을 비워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탐욕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탐욕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합 왕의 곁에는 아합의 탐욕을 멈추게 해야 할 이세벨은 오히려 그의 욕망에 동조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왕상 21:7). 그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아내였습니다. 잠언 14 장 1 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의 원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소중한 가정을 허물고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세벨의 탐욕은 마침내 신실한 의인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잔혹한 죄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열왕기상 21 장 13~14 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15 절). 탐욕은 이처럼 단순히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탐욕은 결국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더 늘리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신실한 동료를 모함하거나 축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이미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빼앗고 불평을 낳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탐욕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직시해야 합니다. 전도서 7 장 7 절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처럼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쉽게 조급해지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 장 8~9 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된 비우기를 잊어버리고 탐심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의 결과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당장 채우려고 조급해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까닭에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일터와 가정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며 성급하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급한 분노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에 오염되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도서 7 장 10 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함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탐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왜 지금의 내 형편이 과거보다 이렇게 못한가?”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터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한 채,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전성기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소유의 크기를 비교하며 과거의 영광만을 좇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쓴 탐욕

나아가 기독교 신앙에서 드러나는 탐욕의 가장 추악하고 교묘한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종교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오직 재물과 물질을 숭배하는 영적 외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장된 탐욕의 실상을 누가복음 16 장 14~15 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을 본질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묘사하며 그들의 부패한 중심을 폭로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인 자기 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적 성공과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면서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풍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이유만으로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영적 권위를 얻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보다 믿음과 인격과 섬김의 열매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신실함보다 재물과 사회적 영향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공동체 역시 탐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교회의 성장"과 같은 신앙적인 표현 뒤에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기도 응답',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같은 신앙적인 표현 뒤에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성공이나 합법적인 절차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탐욕을 발견하고 비워야 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눈이 멀어 사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영적 지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6 장 11 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탐욕의 중요한 특징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돌보며 섬겨야 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늘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회와 사역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한 지도자의 탐욕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려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1 장 39 절에서 주님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정결해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르파게'에 담긴 탐욕의 의미

여기서 누가복음 11 장 39 절에서 '탐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르파게'(ἁρπαγή, harpagē)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탐욕은 단순히 '조금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의 욕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이 자라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까지 빼앗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종교적인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에게 탐욕은 더욱 위험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라고 선포하면서도, 삶에서는 돈을 자신의 힘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붙들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고 외쳤듯이, 탐욕에 대한 회개도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신앙적인 말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 장 14 절은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이라는 말은 헬라어 '필라르귀로이'(φιλάργυροι, philargyroi)에서 나온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주는 안전과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탐욕을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 편 11 절과 36~37 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탐욕을 비우는 중요한 길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시선은 쉽게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돈을 적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 장 10 절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됩니다. 더 많은 돈과 소유를 얻기 위해 신앙과 양심을 희생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고,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탐욕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고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편 73 편 7 절은 “그들의 눈은 지방으로 살찌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탐욕을 일으킨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이 도구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다시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탐욕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6 장 9 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탐욕을 비우고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탐욕을 마음에서 비워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며, 더 많이 쌓아 두어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더 가지려는 욕망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날마다 비워야 합니다. 내 이익과 소유와 평판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본이 주는 넉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과(롬 6:23),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롬 8:38~39).

그러므로 일터와 가정의 형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에도 그 풍요를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탐욕을 비운다는 것은 돈을 버리거나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비우는 사람은 재물을 움켜쥐기보다 감사하며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냅니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만족을 찾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날마다 실천해야 할 '탐욕 비우기'의 길입니다.

“탐욕” 비우기의 원리 및 실천 지침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탐욕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탐욕은 한 번의 결단으로 사라지는 죄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며, 더 가지려는 욕망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탐욕 비우기의 원리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을 배우십시오.

탐욕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만족도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만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배우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가지려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2.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탐욕은 손을 움켜쥐게 하지만 사랑은 손을 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십일조와 구제와 나눔도 이러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돈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켜쥔 손을 펼 때 재물은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3.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살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시선은 쉽게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더 가지고 싶은가?"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인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곧바로 사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생활의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도 탐욕을 비우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수록 세상의 욕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조금씩 비워지게 됩니다.

4. 돈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 응답"이라는 신앙적인 말로 자신의 돈 사랑이나 욕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정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마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과 자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탐욕을 비우는 회개는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5.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탐욕과 감사는 같은 마음을 동시에 지배하기 어렵습니다. 탐욕은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계획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고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형편이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날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의 직책과 소득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지금 맡겨 주신 일과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가 깊어질수록 더 가지려는 마음은 비워지고,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탐욕을 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탐욕을 이겨내겠다"는 생각마저 또 다른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비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탐욕을 보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해야 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감사와 자족을 실제 삶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탐욕 비우기는 내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제자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의 탐욕을 보여 주시면 회개하고, 세상의 재물에 붙들려 있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탐욕을 보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시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게 하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정직하게 사용하며 기꺼이 나누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탐욕을 비우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탐욕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멀리하거나 적게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날마다 실천해야 할 "탐욕 비우기"의 길입니다.

6 장: “위선” 비우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탐욕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죄인 ‘위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선은 실제의 나와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신앙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 비우기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김없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어느 정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을 비우기 위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위선 비우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매우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 장 18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신명기 24 장에 기록된 이혼 증서에 관한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순종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의 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와 전통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지키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 전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위선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성경 지식마저 자신의 위선을 감추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여 내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가?"

위선은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는 가면과 같습니다

신약에서 위선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ὑποκριτής)는 본래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가 위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실제의 나와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한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의지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말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용서를 말하면서 마음에는 오랜 미움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위선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선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습니다(마 26:25). 이미 마음속에서는 배신을 결정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위선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결국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 자체가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영혼도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는 이유로 자신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지 아니면 변명하는지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선 비우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고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의 나를 정직하게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동기까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 장 2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좋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욕망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 장 5 절에서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는지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상대방을 회복시키기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 비우기는 행동만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말하는 것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하는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와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위선을 비우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선보다 먼저 내 안의 위선을 보아야 합니다

위선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저 목회자가 위선적이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선에 관하여 주신 말씀은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 장 5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위선자는 다른 사람의 티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들보에는 둔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작게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위선을 비우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의 위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위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제 안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실제보다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적 위선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위선은 가정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부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이유로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 권위주의라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아내와 자녀 앞에서,“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주님 앞에서도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권위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완벽한 아버지보다 회개할 줄 아는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고 언제나 옳은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사과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도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선을 비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종교적인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하게 보는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로 평가하는지, 얼마나 헌신적인 직분자로 인정하는지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좋은 평판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위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사역과 선행과 생각을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역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도 하나님 앞의 나입니다

위선을 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실제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자리에서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말씀을 전혀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면서 부모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삶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상사가 있을 때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진실해집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회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이용하여 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가?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가?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위선을 비우는 일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선을 비울 수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을 의롭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했기 때문도 아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할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사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위선을 보여주실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위선을 비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 장 17 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만 아름답게 꾸며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위선을 비운다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선” 비우기의 원리 및 실천 지침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위선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위선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마음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실제 삶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12 장 2 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할 때 자라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배우십시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2. 말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옳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말과 삶 사이의 간격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위선은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자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영적인 사람처럼 꾸미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면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실수를 감추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는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을 벗게 합니다.

4.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도 신앙적인 의무를 수행했다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일터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 위선을 비워 가는 길입니다.

5. 믿을 만한 사람의 권면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위선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자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가?" 자신의 체면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면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위선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을 비우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모두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위선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숨어 있는 위선과 자기 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십시오.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사과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날마다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위선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런 분별 없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말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위선 비우기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나 사이의 거리를 줄여 가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하나 되어 가고, 사람 앞에서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하나 되어 가며, 잘못했을 때 가면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과 자기 의와 가식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위선은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위선을 비우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말과 삶이 점점 하나 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위선 비우기"의 길입니다.

7 장: “거짓” 비우기

앞 장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모습 사이에 생기는 ‘위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선이 실제의 나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이라면, 거짓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거나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까지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 장 44 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찾아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유익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감추거나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가?” 거짓 비우기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9 장 3 절부터 6 절은 거짓이 가득했던 당시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활을 당기듯 혀로 거짓을 쏘았고, 서로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 편 4 절은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거짓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조금 바꾸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으며,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을 반복해서 허용하면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비우는

일은 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사랑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엄하게 경고하는 거짓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 장 13 절부터 15 절을 보면 백성은 탐욕에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말씀의 위험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죄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참된 사랑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할 때 반복해서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 장 15 절에서 하나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14 장과 23 장, 27 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꿈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특별히 두려워해야 할 죄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욕망, 성공에 대한 기대나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 앞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언제나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 장 3 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갈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하는 지도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찾는 청중의 문제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이 둘이 만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고, 청중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해 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의 기준은 “내가 듣기에 좋은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순종하게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미가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22 장에는 거짓된 말씀과 참된 말씀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할 때 많은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좋은 말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한 문장이 참된 말씀의 종이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회중이 원하는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좋아할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부드럽게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은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된 말씀의 종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을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유명한가, 감동적인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알맹이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꿈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셋째, 사람을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위로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짓누르는 것이 참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한 곳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도 말씀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직분이나 학력이나 교회의 규모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자동으로 진리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펴고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 "본문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과 목회자를 절대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바라기보다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은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을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은 분명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 장에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고, 결국 죄 없는 나봇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탐욕이 거짓을 낳았고, 거짓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중대한 일을 확정하지 말고 충분한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가르칩니다(신 19:15).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믿고 판단하면 한 사람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문을 빨리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훔쳐 갔다." 자신들의 자리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부활의 진리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감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모든 진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짓을 이기는 길은 더 교묘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 했던 거짓 가르침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여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 장 17 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상품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욕망과 섞지 말고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거짓을 비우는 것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짓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성장이나 나의 평판을 위해 말씀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꼭 전해야 할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듣고 싶은 말씀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은 좋아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물어야 합니다: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익을 위해 약속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 비우기는 다른 사람의 거짓을 폭로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의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고 비우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자신의 의심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갑니다

디모데후서 1 장 5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없는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 장 21 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거짓” 비우기의 원리 및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거짓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거짓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거짓말로 시작되는 경우보다 작은 타협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작은 일에서도 진실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말고 말씀 아래 두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억지로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도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거짓을 비우는 첫걸음입니다.

2. 작은 일에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거짓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빼거나,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야기를 조금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실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사업에서도 계약과 약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설명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3.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옮기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거짓말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직접 확인했는가?"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소문이 한 사람의 신앙과 가정과 명예를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사랑한다면 말하기 전에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다면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4. 일터와 사업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지키십시오.

거짓을 비우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가 돈과 이익이 오가는 일터입니다.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계약의 의미를 바꾸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정직하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버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5.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거짓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 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거짓을 더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고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영혼을 더 깊은 속박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실천만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거짓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거짓을 보여 주십시오. 제 유익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거나 바꾸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십시오. 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십시오. 거짓을 비운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 주십시오."

거짓을 비운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짓 비우기는 내가 원하는 진실을 만들어 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실을 바꾸지 않고, 사람의 박수를 얻기 위해 말씀을 바꾸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변명보다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문보다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는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비우는 마지막 목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바꾸지만,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을 선택합니다. 거짓은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짓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만, 복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 유익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하나씩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날마다 걸어가야 할 "거짓 비우기"의 길입니다.

8 장: “미움” 비우기

앞 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거나 바꾸는 ‘거짓’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 8 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깊이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죄, 곧 ‘미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깊은 분노가 생깁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프고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상대방을 미워하며,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 장 15 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저주하며 그의 불행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미움 비우기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와 분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비우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미움을 비우지 못한 사람의 비극

성경에서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은 창세기 4 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노했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며 죄가 그를 원하지만 그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보다 아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보다 동생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서 자란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움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미움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을 계속 품으면 분노가 되고, 분노를 비우지 않으면 미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작을 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생겼을 때 "별것 아니다"라고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미움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언제나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창세기 27 장에서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상처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복수심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 비슷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저 사람도 내가 당한 만큼 당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나 폭력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보복할 권한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 장 19 절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을 비운다는 것은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 반드시 갚아주려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비교와 질투는 미움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삶에서도 우리는 미움이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비교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결국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목회자의 교회가 더 성장할 때, 직장에서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마음속에 비교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미움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 장 19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6 장 32 절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미움으로 자라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미움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움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곳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족은 서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3 장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상처와 미움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품었던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다말을 강제로 범한 뒤 오히려 그녀를 심히 미워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만듭니다. 암논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결국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미움이 또 다른 미움과 복수를 낳은 것입니다. 미움은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비워지지 않은 미움은 배우자에게 전달되고, 때로는 자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상처를 자녀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창세기 29 장에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에서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갈등 속에서 자녀를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배우자의 잘못을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나,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정서적인 위로를 자녀에게 지나치게 요구하면 자녀가 부모의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가능한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원망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미워할 이유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가 다음 세대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을 비우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미움받았지만 미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 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비교가 시기를 낳았고, 시기는 미움으로 자랐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미움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악을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 장 21 절은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미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나를 오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 장 20 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이 행한 악을 악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미움을 비우는 데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용서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에도 미움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 장에서 주님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그 사람이 던진 미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 장 3 절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움받을 때 상대방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길입니다.

용서는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용서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를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가 즉시 회복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반드시 이전과 똑같아져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심각한 해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관계의 온전한 화해에는 상대방의 진실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상대방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과 복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본은 십자가입니다

미움을 비우는 가장 깊은 자리는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은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만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움켜쥐고 있던 미움을 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 갑니다.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언 10 장 12 절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잘못을 묵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붙잡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 두었다가 싸울 때마다 다시 꺼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비우는 일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쌓아둔 오래된 서운함을 살펴보십시오. 부모에게 품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형제자매를 향한 경쟁심과 원망도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사람에 대한 실망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한 분노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미움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움을 붙들고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움”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미움을 어떻게 실제로 비워 갈 수 있을까요? 미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다시 생각나고,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일 때문에 다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미움 비우기는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이라기보다, 상처와 분노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선택해 가는 과정입니다.

1. 미움의 씨앗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서 즉시 다루십시오.

작은 서운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며 화를 키우고 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미움이 없는 척하는 것은 비우기가 아닙니다. 먼저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울 수 있습니다.

2. 분노가 클 때에는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생각나는 말을 모두 쏟아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분노를 그대로 퍼붓지 마십시오. 일터에서도 화가 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실을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분노를 억누르는 것과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감정이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복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의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의 공의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을 비우는 중요한 순간은 내가 쥐고 있던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입니다.

4. 가정의 상처를 다른 가족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풀지 마십시오. 자녀를 자기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며 편애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배우자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가정에서 미움의 흐름을 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 세대에서 미움의 흐름을 끊는 것도 비우기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5.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즉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계속 저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어느 날 긍휼의 기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실천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은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미움을 감추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미움을 보여 주십시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제가 받은 상처를 배우자와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미움을 비운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미움을 비운다는 것은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 비우기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평생 분노와

원망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 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미움을 비워야 합니다. 에서의 복수심을 비워야 합니다.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비워야 합니다. 요셉처럼 사람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움은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움은 상처를 붙들고 살게 하지만, 사랑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놓지 못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상처는 무엇인가?" "내가 심판자가 되어 반드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내가 받은 상처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이름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비우십시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비운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미움이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미움 비우기"의 길입니다.

9 장: “악한 생각” 비우기

앞 장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시작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생각, 서운함과 미움, 탐욕과 염려, 교만과 시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마음을 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과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계속 붙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스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스쳐 가는 생각을 붙잡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키우고, 즐기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자란 생각은 결국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 비우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키우지 않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 장 19 절에서 주님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 장 21 절부터 23 절에서도 여러 가지 악이 사람의 속, 곧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가? 남의 것을 훔쳤는가? 다른 사람을 해쳤는가? 음란한 행동을 했는가? 물론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행동을 만들어 낸 마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 장 15 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계속 품으면 욕망으로 자랄 수 있고,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비우는 일은

이미 나타난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 내는 마음의 방향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질투하면서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 장 4 절에서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 보이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언제나 노골적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열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신앙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과 정죄와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2 장 18 절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자기 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계산'을 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 장 46 절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디알로기스모스'(διαλογισμός)는 생각이나 추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관련된 말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논쟁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가?"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하는가?" "저 사람과 가까이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러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손익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잘해 주면 좋아하고, 내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하고, 나를 인정해 주면 사랑하지만, 내 기대를 채워 주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비운다는 것은 나쁜 생각 몇 가지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내 유익에 따라 계산하고 평가하려는 마음까지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5 절은 사랑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제타이'(λογίζεται)는 계산하다, 헤아리다, 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행한 잘못을 마음의 장부에 계속 기록해 두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갚아주어야 해."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받은 일을 상대방을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한 장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언 17 장 9 절은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복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속으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계산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 장 1 절부터 4 절은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낮은 자리로 밀어내는 모습을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등급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 “이 사람과 가까이하면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사람의 재산과 직업,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산하는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까지 계산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계산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신앙도 거래가 됩니다. 사도행전 8 장의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보다 자신이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 장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만 감사하는가?”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계산하면 섬김이 거래가 됩니다. 신앙을 계산하면 하나님마저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보다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품으면 행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과 욕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7 장에서 아간은 전리품을 보았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다루지 않자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 장 2 절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이후 그 배반의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0 장 5 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붙들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인가입니다. 생각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생각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것인지는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방치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품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했던 일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하다 보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탐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라고 포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였던 마음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잠언 4 장 23 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에 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생각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미움과 교만과 탐욕으로 끌고 가는가?" 이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마음의 밀실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의 밀실이 있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판단하고 욕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면서 마음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밀실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이 기도는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생각을 비운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악한 생각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 장 2 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 장 8 절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올라오면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질투가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교만이 올라오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죄하고 싶을 때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탐욕이 올라오면 이미 받은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비우는 가장 좋은 길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악한 생각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멈춤-분별-기도-대체’를 실천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무조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분별하십시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생각은 사랑과 진실과 거룩함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과 교만과 탐욕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생각을 제 마음에 품고 키우지 않게 하십시오. 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체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미움에는 용서를, 시기에는 축복을, 교만에는 겸손을, 탐욕에는 감사와 나눔을, 정죄에는 긍휼을 선택하십시오. 악한 생각 비우기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는 과거의 허물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과거의 잘못을 쉽게 꺼냅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잖아.” “몇 년 전에도 똑같았어.” “나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상처를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한 일을 싸울 때마다 다시 꺼내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잘못을 마음속 장부에 계속 기록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과거 실수로 현재의 자녀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약점을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악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생각 비우기는 가족의 허물을 모두 잊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붙들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3.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재산과 직업, 학력과 영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전체를 악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문만 듣고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대화에 쉽게 동참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는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열등하게 보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게 합니다.

4. 일터에서는 손익보다 정직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일터에서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에서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책임 있는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산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정직과 공의와 사랑을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모르는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마십시오.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동료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인가?"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함께 물으십시오. 성도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5. 하루를 마치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라도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판단했는가?" "누구에게 서운함을 품었는가?"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내 유익에 따라 대하지 않았는가?" "내 이익을 위해 정직을 타협하려 하지 않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시편 139 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잘못을 발견하면 회개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십시오.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 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루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끌려가기보다 생각을 말씀 아래 두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살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는 제 마음속의 악한 생각을 보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하며, 미워하고 질투하며, 제 유익만을 구하려는 생각을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들고 키우지 않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십시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제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비운 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주십시오."

악한 생각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생각 비우기는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판단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비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발견할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비우십시오.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에 맡기십시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악한 생각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믿음은 "내 생각도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생각을 비우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악한 생각 비우기"의 길입니다.

10 장: “음란” 비우기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잠 6:32-33).

앞 장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되는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자리 잡는 악한 생각 가운데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마음과 정욕입니다.

성적인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잘못된 욕망을 반복해서 키울 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1 장에 보면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데려오게 하여 간음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비운다는 것은 간음이라는 마지막 행동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을 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질서 안에서 눈과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행동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으로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자체와 그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죄는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사실과

분리하여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떼어내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한 정욕을 의도적으로 품고,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즐기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으려고 할 때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음란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잠언 6 장은 간음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음란의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죄가 따라오기 쉽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숨기게 됩니다. 행적을 감추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은밀한 삶을 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란은 거짓과 위선을 함께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저 친한 관계일 뿐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길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의 길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 장 16 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란이 언제나 눈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관계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마음을 기대면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영상, 소셜미디어를 반복해서 보면서 정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필요 이상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으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보고 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서 배우자에게 받아야 할 친밀함을 찾고 있는가?” “누구의 관심과 인정에 지나치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마십시오

잠언 7 장은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는 위험한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피해야 할 상황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유혹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유혹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십시오. 삭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삭제하십시오. 접속하지 말아야 할 곳에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흔드는 관계라면 적절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목회자니까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음란의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몸은 내가 마음대로 바라보고 상상하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은 뒤로 밀려나고 나의 욕망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만 정욕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정욕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경계를 지키지만 정욕은 경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비운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성 자체를 더럽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사랑과 성적인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떼어내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요구보다 사랑과 책임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결혼의 친밀함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난 정욕은 그 아름다운 선물을 왜곡시킵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잠언 5 장 18 절은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결혼의 언약 안에서 만족과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내 배우자보다 더 아름답다." "저 사람은 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이해해 준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더 잘 들어준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품으면 배우자의 부족함은 점점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배우자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실함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친밀함을 가꾸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결혼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돌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어려움은 간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정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도움을 받으며 관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사실이 간음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우리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자신의 간음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옮기기보다 먼저 배우자와 정직하게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언약에 마음과 몸과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성적인 죄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매우 민감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정욕에는 둔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 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눈은 깨끗한가?"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품는 정욕은 없는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면서 내 마음의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음란의 죄에 빠졌을 때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거짓이 따라옵니다. 위선이 따라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따라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 "배우자 때문에 외로웠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한 번뿐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회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났을 때 마침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음란을 비우는 사람은 한 번도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을 멈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방향을 돌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성적인 죄를 다룰 때 경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회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간음이 가벼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심각함과 함께 죄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도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실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으로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배우자의 아픔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적이고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기만이나 다른 심각한 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안전과 존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게 돌이킬 힘을 줍니다.

육체의 간음보다 더 깊은 사랑의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일을 간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음란을 살피면서 더 깊은 질문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사역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음란 비우기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결국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비우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음란”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음란을 어떻게 실제로 비워 갈 수 있을까요? 음란 비우기는 단순히 “간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관계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유혹이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지혜롭게 다루며, 잘못된 욕망을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채워 가는 과정입니다.

1.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영상과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머무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찾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상상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유혹이 되는 콘텐츠나 환경이 분명하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십시오. 죄를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2. 관계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음란은 육체적인 관계 이전에 정서적인 관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숨겨야 할 메시지나 만남이 생기고 있다면 이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만으로 자신을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와 상담, 직장과 사역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숨겨야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결혼의 친밀함을 돌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상대방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서로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결혼의 신실함은 간음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배우자를 계속 사랑하고 존중하며 언약을 돌보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4.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욕망이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직 행동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죄를 범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감추는 데서 돌아서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5.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채우십시오

음란을 비우는 목적은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던 눈이 존중하는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비교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만을 구하던 마음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정욕을 비운 자리를 방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실천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이런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잘못된 욕망을 깨닫게 하시며, 유혹 앞에서 피할 길을 선택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숨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잘못된 욕망과 관계를 비우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결혼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십시오. 죄를 깨달았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제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비우게 하십시오. 정욕을 비운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음란을 비운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비운다는 것은 기쁨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의 욕망보다 더 크고 깊은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단지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과 삶으로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가?" "내 몸과 마음과 관계는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비워야 할 것을 비우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십시오.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음란은 "내 욕망을 채우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음란 비우기는 욕망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음란 비우기"의 길입니다.

11 장: “원망” 비우기

앞 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잘못된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 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쉽게 자리 잡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가?”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수없이 이런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망은 단순히 불평 몇 마디를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뿌리에 있는 불신과 불만족,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비우며, 그 자리를 믿음과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원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 장을 보면 그들의 원망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 안에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신 1:27).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죽음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신 1:32). 결국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단지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입술만 막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원망을 비우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일입니다.

불신은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 장 26 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불만족은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원망이 언제나 이 순서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이유가 정말 환경 때문만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원망의 입술만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원망은 과거의 '애굽'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민수기 20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민 20:5). 애굽은 그들에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압제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힘들어지자 애굽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기억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크게 보이고 과거의 고통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생활이 힘들면 혼자였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힘들면 이전 직장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더 자유롭고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바라봅니다. 원망은 애굽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자 다시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 장 24 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 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17 장에서는 다시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전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없는 것을 크게 만들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작게 만듭니다. 감사는 반대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올라올 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내게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 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와도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3 장의 본문을 단순히 부부 사이의 원망 이야기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대상을 탓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합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랬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교회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실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은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가 범한 죄의 책임까지 가져가 주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을 비우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 편 25 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원망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이 너무 커집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부족한 것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의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원망을 비운다는 것이 아픔과 질문을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답답함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고 묻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데 웃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데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퍼뜨리면 험담과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키우면 미움과 원망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원망을 그대로 품고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 제기를 '원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죄 된 원망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 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니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구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세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는 실제 문제를 살피고 바로잡았을 때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망을 제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원망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모두 의로운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모든 문제 제기를 "원망"이라는 말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속에 실제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가?" "내가 듣기 싫어서 원망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원망의 말보다 그 마음을 들으십시오

가정은 원망이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망이 반복되면 서로의 말보다 상처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만을 말할 때 즉시 반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나 때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배우자의 모든 말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실제 아픔이 있는지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의 말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가족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원망의 소리를 방어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모든 문제 제기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필요한 말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 장의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먼저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과 다른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을 통해 제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말로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다른 성도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상처가 공동체 전체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가 아니지만, 무조건 막아 버리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맡겨야 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빌립보서 2 장 14 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일에 대한 불평이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부족한 것을 먼저 봅니다.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봅니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비우려면 감사도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함께 살아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십시오: "완전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할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일할 기회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실제였습니다. 욥기 1 장 20 절은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원망”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원망을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원망을 비우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불신과 불만족을 비우고 믿음과 감사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 원망이 올라올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비교 때문인가?” “상처 때문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원망의 순간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망을 사람에게 퍼뜨리기 전에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망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퍼뜨리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동체에 불신과 분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답답함을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도 살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험담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십시오. 원망을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로 바꾸십시오.

3. 과거의 ‘애굽’을 미화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현재가 힘들 때 과거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때문에 과거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붙들어 주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지금도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믿게 하십시오." 원망은 과거를 붙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4.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비난보다 회복을 구하십시오

실제 잘못이 있다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망을 비운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거나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말할 때 자신의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당사자와 정직하게 대화하려고 하는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싶은가, 아니면 관계와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문제를 듣는 사람도 방어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 말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는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듣는 사람은 실제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원망의 소리가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원망의 자리를 감사와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원망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불만족을 비우고 자족으로 채우십시오. 비난을 비우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두려움을 비우고 기도로 채우십시오. 원망을 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매일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누구를 탓했는가?" "그 원망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갔는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을 비우는 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깊을 때, 억울함이 클 때, 오랫동안 기다려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원망의 뿌리에 있는 불신과 불만족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원망을 보여 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정작 제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불만족을 보지 못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제 책임으로 떠안지도 않게 하십시오. 고통과 서운함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보다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제가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원망을 비운 제 마음을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 주십시오.”

원망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 비우기는 고통과 불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되, 그 고통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불신과 비난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상대방에게 말해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원망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원망은 과거의 애굽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먼저 찾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망이 마음에 올라온다면 그것을 숨기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고쳐야 할 것은 고치십시오. 감사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망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믿음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원망을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원망 비우기”의 길입니다.

12 장: “질투” 비우기

앞 장에서는 원망을 비우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오래 머물면 또 하나의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이런 비교를 마음속에서 계속 키우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마치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질투는 결국 비교에서 시작하여 교만으로 자라고 미움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비우려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한가?” “나는 왜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질투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9 절).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자 다윗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질투는 다윗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질투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질투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에 싫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낮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마음속에서 사람을 경쟁자로 만듭니다

질투가 들어오면 형제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역자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 장 12 절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에 대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의로움이 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비교가 질투로 자라고, 질투가 미움으로 자라고,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저 사람도 별것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며 그의 기쁨을 불편해하고 그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게 합니다

사울의 비극은 다윗을 미워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질투에 사로잡히면서 그의 관심은 블레셋보다 다윗에게 더 많이 향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데 시간과 힘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계속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를 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과 성공을 바라보다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놓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내 것보다 더 돋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충실하십시오. 경쟁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울의 질투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도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요청했습니다(삼상 15:30).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언제나 죄는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기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불편하고, 내 이름이 알려져야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상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3 절). 질투를 비우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알고 계십니다.

아삽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질투의 문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 주는 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시편 73 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시 73:3). 아삽은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17 절). 아삽의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25 절). 이것이 질투를 비우는 중요한 길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을 더 자세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계속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칭찬받는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더 큰 사역을 하는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질투를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십시오

질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슬픔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축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되었을 때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목회자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직장 동료가 승진했을 때 축하하십시오. 친구의 사업이 잘될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하면서 마음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투는 "왜 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라고 묻지만, 사랑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질투를 비우고 감사를 배우십시오

질투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질투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저것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비우려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교회를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질투는 없는 것을 확대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질투는 부족함을 확대하지만, 감사는 은혜를 확대합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내게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질투 때문에 나까지 질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요셉의 꿈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생겼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분명 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되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질투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투 때문에 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비워야 할 질투와 품어야 할 거룩한 열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비워야 할 죄 된 질투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5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열심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울의 질투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질투였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열심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 아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픈 것인가?" "이 열심은 사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소유욕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은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소유하려는 마음까지 거룩한 질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지키지만 상대방을 소유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나의 영광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거룩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열심입니다.

질투를 비우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질투를 비우는 목적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왜 저 사람을 불편해하는지 보여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비교와 교만을 비워 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축하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마음이 먼저 따라오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투” 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질투를 어떻게 비워 갈 수 있을까요? 질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여 교만과 미움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비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비교를 감사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1. 질투가 올라올 때 비교하고 있는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재산입니까? 외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역의 크기입니까? 교회의 규모입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입니까? 비교의 대상을 발견하면 그 생각을 계속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살게 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경쟁자로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되기를 축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형제자매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한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형제자매에게 주신 은혜를 경쟁의 이유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의 열매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일터에서도 동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질투를 비우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3. 사람의 인정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충실함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를 계속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 칭찬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실하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칭찬받아도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십시오. 물론 정당한 평가와 공정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실을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투를 비우는 사람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4.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질투가 올라오면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을 세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가족, 건강, 교회, 일터, 친구, 은사, 사역,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히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왜 나는 이것이 없는가?"라고 말할 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질투가 생길 때 가장 좋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바라보는 데 시간을 다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게 맡기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순종에 충실하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비교하던 마음을 사명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나 질투를 비우는 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비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잘되면 무조건 기뻐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속 깊은 질투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비교와 교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될 때 불편해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질투와 비교와 교만을 보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될 때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제가 낮아진 것처럼 느끼는 마음을 비워 주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며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십시오. 질투를 비운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겸손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질투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투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슬픔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삽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요셉처럼 사람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질투는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묻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질투를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비교와 교만과 미움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감사와 사랑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질투 비우기"의 길입니다.

제 3 부:

비운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기

13 장: 그리스도로 채우기

이 책에서 계속해서 묵상한 주제는 "비우기"였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비워야 합니다. 탐욕을 비워야 합니다. 위선을 비워야 합니다. 거짓을 비워야 합니다. 미움을 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음란을 비워야 합니다. 원망을 비워야 합니다. 질투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비워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비운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욕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거짓과 원망과 질투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기의 마지막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없어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인의 비우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향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책에서 말해 온 "비우기"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개성과 인격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우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묻던 사람이,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이,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움 이후에 나타나야 할 변화입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 장 5 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책의 출발점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다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가정에서는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비운 자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운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입니다. 교만을 비웠다면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탐욕을 비웠다면 자족과 나눔이 나타나야 합니다. 위선을 비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짓을 비웠다면 진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미움을 비웠다면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비웠다면 선하고 깨끗한 생각이 자라야 합니다. 음란을 비웠다면 거룩함과 신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망을 비웠다면 믿음과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질투를 비웠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도, 진실함도, 사랑도, 거룩함도, 감사도,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라고만 묻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가?"에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가?"에서 끝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비움은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죄를 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신앙도 아닙니다. 비움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더욱 나타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 장 16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가치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줍니다. 잘못된 욕망을 보여 줍니다. 숨겨진 교만을 드러냅니다. 미움과 질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오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 장 18 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 장 22 절과 23 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억지로 만들어 내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를 악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질투하면 안 된다."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은 내 의지로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섬깁니다

이 책의 3 장에서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보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보다,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왜 아무도 나를 섬기지 않는가?"보다, "내가 먼저 누구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먼저 들으십시오. 잘못했을 때 사과하십시오. 자녀에게 말로만 믿음을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섬길 자리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십시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비움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교만을 비울 수 없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 탐욕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미움을 비웠다고 내일 다시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원망하지 않았다고 내일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제자도의 과정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역은 없는가?" "다시 들어온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원망은 없는가?" 그리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우기는 한 번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이 말씀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비우기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가장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수록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우기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일입니다.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비교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자랑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채우기”의 원리와 실천 지침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도록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1.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생각과 감정이 최종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시오.”

2.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가?”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 힘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성령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원망이 올라올 때 감사를 구하십시오. 질투가 올라올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 용서할 힘을 구하십시오.

유혹을 받을 때 피할 길과 절제할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4.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잘못했다면 사과하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일터에서는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5. 매일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의 말을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6. 하루를 마치며 무엇으로 채워져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한 순간은 없었는가?" "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는가?"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다시 들어온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는 없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죄가 보이면 숨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실천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비워 주시고 그리스도로 채워 주십시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시오.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제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저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고, 제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우기는 나를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비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비우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은 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비우기"의 길입니다.

결론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해 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려놓기”와 “비우기”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내려놓기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비우기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 자랑, 내 이름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비우기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비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 장 7 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비우기는 단순한 자기 수련이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우기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우기는 나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탐욕, 위선, 거짓, 미움, 악한 생각, 음란, 원망, 질투를 말씀 앞에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달랐구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그러나 이러한 죄들을 살펴본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숨기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우기의 시작은, "나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교만을 내 힘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 의지만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래된 미움과 상처를 단순한 결심만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원망과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비우기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우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마치면서 가장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우기의 목적은 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만이 비워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탐욕이 비워진 자리에서 자족과 나눔이 나타나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이 비워진 자리에서 진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미움이 비워진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음란이 비워진 자리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망과 질투가 비워진 자리에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비움의 방향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며, 내 유익만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비우기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묻기보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섬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사과하십시오. 자녀에게 말로만 믿음을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자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섬길 자리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자신의 이익만 구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비움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은 결국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비우기는 날마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비울 수 없습니다. 오늘 교만을 비웠다고 내일 다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탐욕을 회개했다고 다시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다시 상처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감사했다고 내일 원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우기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서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교만이 다시 올라오면 비우십시오. 욕심이 다시 마음을 붙잡으면 비우십시오. 미움이 다시 올라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질투가 생기면 사람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다시 두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처음에 던졌던 두 질문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내 안에 아직 붙잡고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은 없습니까? 진실을 감추거나 바꾸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키우고 있는 악한 생각은

없습니까? 잘못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다른 성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제 안에서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비워야 할 것을 비우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십시오. 제 힘으로 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제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제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시오. 제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우기는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기는 단순히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우기는 빈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내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유익만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비우기'의 길입니다.